

하루를 시작하며

신순배  
수필작가

일부러 아파트 길을 빙빙 돌아서 왔다. 어스름, 공터 구석에서 면벽하고 담배 피우는 양반, 내 눈은 못 피해. 오가다 급히 밟아 끈 장초를 볼 때부터 짐작했으니까. 짜이즘, 보신각 당목에 실금 간 첫 달이 허물어지면 정조 작심했던 결심도 하나둘 틀어지고 무너질 때. 그렇다고 눈 피하며 너무 비굴해질 필요는 없다. 계획 몇 개 어긋났다고 인생이 무너지지는 않아. 이달이 지나 봄바람 탄면 짜께 감은 허공에 흩어져 살랑살랑 말 바벼를 거니까.

## 대체로 좋은 인생

1월 1일. 3년 묵은 TV에도 새해 가 열렸다. 동튼 지는 오랫동안 화면에 갇힌 말 떼는 여전히 날뛰고 있다. 눈은 감았지만, 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꿈, 목표, 희망, 도전, 결심. 싫은 소리도 듣다 보면 세뇌. 소파에 드러누워 살 굽던 몸이라도 일으켜야 할 미안할 것 같아. 아주 잠깐 용을 쓰다가 말았다. 누가 고발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생각 머리가 백지장이네. 내게 꿈이 있을 리가? 생애 전체를 통틀어 봐도 그 래. 강제로 꿈을 가져야 했던 코흘리개 시절, 모두 대통령과 의사, 과학자를 써냈지만 나는 적지 못하고 대신 매를 맞았다. 꿈이 없었기 때문. 기억이 애매하지만 꿈꾸기 싫었을 수도 있었고. 커가면서 궁금했어. 그냥 살기, 살아지는 대로 살기. 결혼하고 애도 낳기, 아예 꿈 없는 빙가는 왜 답이 안 될까? 누구

에게도 묻지는 않았다. 매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되긴? 아무도 원치 않던 소시민으로 살고 있지. 가끔 법 없이 사는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둔갑도 하면서. 꿈이 없이 살아온 것도 어찌 보면 배짱이야. 그렇다고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도리 있나? 별난 재주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니 그저 쳇바퀴 둘 듯 살다 이게 인생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그래도 돌아보면 몇 번만 울고 어려운 웃으며 살았으니 됐지 싶고. 늘그막에 조금 깨달은 게 있기는 하다. 게으르지만 않으면 좀 허술하고 부족해도 살아가는 데 별 지장 없다는 거. 누구 말마따나 이 꽉꽉한 세상에 달걀 한 판 정도는 고민 없이 살 수 있으면 인생은 대

체로 좋은 날이 많다는 거. 소시민의 삶도 꽤 괜찮다는 거. 그러니 꿈이 없거나 꿈이 깨지거나 꿈을 도둑맞더라도 괜찮다. 털고 일어나서 모처럼 햇살 좋은 겨울날의 오후를 즐겨보자.

그렇더라도 여포 같은 적토마가 헝겊 우는데 이런 식의 배 째라는 옳지 않아. 그래서 고민 끝에 최소 한으로 세운 올해 결심. 하던 것만 하자. 싫은 건 하지 말자. 미운 사람은 만나지 말자. 휴일은 방콕하자. 아프면 병원 가자. 개수만 많지 종합하자면 '별일 만들지 말고 별일 없이 살기'인데 아직은 순항 중.

담배 피우던 젊은 양반, 거듭 말하지만, 계획 몇 개 틀어졌다고 인생 깨지는 거 아니다. 아, 중간에 대통령 꿈에서 조기 퇴임한 너석을 만났다. 계산은 당연히 대통령이, 밀감 판 연봉으로.

## 열린마당

## 설날 부모님께 안전을 선물하세요

김용성  
제주소방서 항만119센터

설 명절이 다가오면 소방관들은 평소보다 더 분주해진다. 고향을 찾는 발길이 늘고 제수용 음식 준비로 화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근무하며 가장 안타까운 순간은 초기에 소화기 한 대만 있었어도 혹은 잠든 사이 경보음 한 번만 울렸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인명 피해를 막아줄 때다. 설 명절을 맞아 도민과 구성원 여러분께 당부드린다. 우리 부모님 댁에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가장 값진

효도를 선물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림으로써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한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한다.

이번 설, 고향 집을 방문한다면 다음 사항을 직접 점검해 주길 바란다. 소화기가 구석진 창고가 아닌 현관이나 주방 등 눈에 잘 띠는 곳에 있는지, 감지기의 테스트 버튼을 눌러 경보음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소화기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내부 약제가 굳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올 설에는 부모님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릴 소화기와 감지기를 챙기는 것이 어떨까. 작은 실천이 고향 제주의 명절을 더욱 따뜻하고 평안하게 만든다.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뉴스-in

## “농가·기부자 모두 도움 되는 상생 모델로”

## 만감류 담례품 공급처 접점

○…제주도가 설 명절을 맞아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 특별 행사 '만감류 하영드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11일 이틀간 담례품 공급 현장을 접점.

이는 기부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품질 관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첫날인 10일에는 만감류 주요 공급처를 방문해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데 이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명절 기간 담례품 수요 급증에 따른 인력 수급 현황과 물류비 부담 등 애로 사항을 청취.

양기철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고향사랑기부제가 농가와 기부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모델로 자리 잡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 진선희기자

## 제주경찰청 치안소식지 창간

○…제주경찰청이 온라인 치안 소식지 '우리 곁에, 제주경찰'을 창간, 2월 창간호에 묵묵히 일선에서 맹활약 중인 1·2월 '인성 히어로' 소개를 비롯해 주요정책, 현장 사례, 생활 밀착형 치안정보를 오롯이 수록.

또한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 피싱 사례로 한 '사기수법 한눈정리', 제주경찰의 현장 치안활동 성과, 생활 속 범죄예방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한컷'과 주요 소식도 함께 게재.

고온영 정책홍보팀장은 “치안 소식지를 통해 생활 속 범죄예방을 위한 치안정책 정보뿐 아니라 현장에서 경찰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도민의 평온한 일상 곁에 늘 함께하는 든든한 제주경찰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겠습니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 사설

## 불법 현수막 난립… 솔방망이 처벌이 문제

제주 도심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어 시민 불편과 도심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설 명절과 6·3지방선거를 앞두 불법 현수막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가 최근 3년간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2023년 5만2728건, 2024년 6만5918건, 2025년 6만3138건이다. 불법 현수막이 도심을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종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2023년 39건, 2024년 250건, 2025년 278건에 그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철거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는 전체 건수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이다.

불법 현수막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불법 현수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이 공해로 인식할 정도다.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치는 이유로 솔방망이 처벌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통계에서 보듯이 과태료 부과가 전체 불법 건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게첨했다가 철거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당국은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고 엄중하게 처리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 1년 반 만에 버스 증차 ‘만시지탄’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24년 8월 버스노선과 차량을 감차 후 1년 반 만에 민원이 많았던 노선을 중심으로 오는 12일부터 증차와 노선을 일부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1단계는 12일부터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위주로 13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4월부터는 8개 노선과 버스 14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올해 연말에는 혼잡이 일상화된 노선을 중심으로 버스 6대를 추가 투입하고 일부 수요맞춤형 노선은 운행을 종료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2024년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후 도민들의 불편 호소가 이어지자 일부 노선에 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수요맞춤형 ‘옵저버스’를 도입하는 등 땀질식 차방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주민들의 버스 이용

## 부고

강권익(前 제주대학교 도서관장) 어머니 제주양씨 상월(향년 97세)께서 서기 2026년 2월 10일 03시 15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6년 2월 12일(목요일)  
▶ 발인일시: 2026년 2월 13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번소  
▶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아들 강권익  
경훈  
기훈  
딸 강영임  
경희  
손자 강태한  
병철  
상현  
손녀 강주연  
시원  
지우  
민지  
손서 김동완  
※ 연락처: 강권익 010-8661-0747  
강경훈 010-3699-4227  
강기훈 010-9712-0737

## 주식액면분할로 인한 주권제출 공고

당 회사는 2026년 2월 10일자 개최한 임시 주주총회에서 당 회사의 자본금 1주의 금액 10,000 원의 주식을 100주로 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 원으로 하기로 결의하고, 그 결과로 당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10,500주에서 1,050,000주로 각각 변경하기로 하였으므로 구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본 공고 게재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 합니다. 2026년 2월 11일

## 주식회사 에이비티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병약로 266

공동대표이사 김현군, 조남기

## 작명☆택일☆사주☆운세상담

- 운명과 삶의 흐름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사주와 맞는 좋은 이름을 작성해 드립니다.

## 사주명리학 수강생 모집

은퇴 없는 평생직장 역학상담사

1. 역학상담사 자격증반 2. 철학원 창업반(통번총집)

\* 개인교습으로 수시모집

▶ 연락처

동방철학원 064)759-4585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도지부장 문학림

##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풀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 JK 약백도라지연구소

##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말이내 가능합니다.”

◆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기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전문 신소장 010-7305-7819 제주도박이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 하고 있는 일

- ▶ 키온·교화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정 설비공사
-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제18000호) / ISO 9001 인증업체

##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 우례아

방수전문건설업

## 석주 개발

☎ 782-3644

010-4690-3636

##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국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